심사분야 - 회계

공기업 재무성과지표가 경영실적평가에 미치는 영향

안나영, 권선국, 유수연
경북대학교

핸드폰번호 : 안나영(01047409977), 권선국(01030055447), 유수연(01041769226)
E-mail 주소 : any8006@hanmail.net, skwon@knu.ac.kr, suyeon9226@naver.com
원고매수 : 13
연구비

공기업 재무성과지표가 경영실적평가에 미치는 영향

안나영[1)]

<요 약>

본 연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노력과 성과를 매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가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 지표가 경영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량업관리비는 경영평가등급과 유의한 음(-)의 계수값이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과 경영평가등급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총자산회전율과 부채비율과는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에는 회계지표의 일부항목이 반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회계지표는 경영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지표가 공기업 경영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공기관의 대상 중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용된 회계정보지표 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로 다양한 회계정보지표를 추가하거나, 공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준정부기관까지 표본 수를 늘려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색인어 : 공기업경영평가, 회계성과지표, 재무성과지표

Ⅰ. 서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마다 수없이 지적 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공기업들은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구실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을 계속해서 확보하지 못해 결국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면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파탄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결국 국

1)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게 된다. 실제 연구결과(조일출, 2005)에서도 공기업들의 공공성과 재무성과 사이에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어, 그 동안 많은 공기업들이 공공성과 재무성과 간에는 마이너스(-) 관계(상충관계:Trade-off)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에서 재정적자는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공기업들의 업무분야는 대부분 독점산업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나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유인이 아주 적다.

1984년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 이래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 경영평가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국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모형은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모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는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과 책임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설립역사가 오래된 과거 정부투자기관(현재 공기업)뿐만 아니라 신설된 준정부기관까지 복잡한 대리인 문제와 정보 불균형 해소, 경쟁력의 강화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약 30년 동안 수차례의 평가대상과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의 변경을 거쳐 현재 1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제도가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제도 목적에 부응하여 운영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매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가 이러한 공기업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는 회계지표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 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획재정부, 2015). 즉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려는 제도인데, 특히 경영평가를 통해 피평가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도입되어 30여 년 동안 맥을 이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보안되어 왔다. 1984년에 24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0년대 후반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 기관, 책임운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포괄한 모든 공공기관이 기관 평가 대상으로 재편되

었다(박석희, 2006). 2007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기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분리되어 시행되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로 일원화 되었다(민병찬, 2014).

2007년 4월 공운법 제5조에 의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재분류되어 평가대상이 지정되었다. 2008년에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평가단, 정부산하기관 평가단 등이 통합되어 공공기관 평가단으로 재구성되었고 경영평가 지표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관리의 체계화 및 경영성과평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재 공운법에 의하여 확립된 경영성과 평가제도는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공기업의 경영진이 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본래 목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는지를 측정,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신완선 · 라영재, 2013).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제도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제도는 ‘성과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경영진이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준다. 셋째, 경영평가제도는 경영성과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책임자에게는 경영 효율성 제고와 조직구성원에게는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넷째,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해당기업이 상업적인 목적과 공익적인 목적을 조화시키도록 만들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리인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를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촉발 시킬 수 있다. 여섯째, 경영평가제도는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환류 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순환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어서 참가과정에서 경영 현안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우수한 제도나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일곱째,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현재 경영평가제도는 전년도 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차년도 2월에 경영 평가단을 구성하며, 공공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영실적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결과가 차년도 6월까지 확정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2.1 평가지표 체계

평가 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개의 범주(경영관리, 주요사업)로 구성한다. 경영관리는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관리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지후생 관리로 나뉘고, 주요사업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별 계획,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각 평가 범주는 단위 평가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 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

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계량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2 경영평가 방법

경영평가 방법은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여 각각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시행한다. 계량지표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로서 객관성이 높으며, 비 계량지표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계량화하기 힘든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다(장지인 외, 2013).

(a) 비계량지표 평가 방법

등급	A^+	A^0	B^+	B^0	C	D^+	D^0	E^+	E^0
평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각 지표 별 세부평가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지표 별 재무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중대한 도덕적 해이 사례인 경우에는 해당지표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계량지표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적용대상 등)
목표 부여 (편차)	당해년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 편자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 대상 실적치가 5년 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 부여	당해년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5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글로벌 실적 비교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치, 세계적 수준 등과의 격차, 비중 등을 활용하여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 인증되는

	설정하되, 목표부여 (편차) 방법 등을 적용	국제기준의 성과지표 또는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 등의 경우
중장기 목표부여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을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설정하되, 연도별 목표는 사업 수행 기간과 최종목표를 활용하여 단위목표를 산출하고 목표부여 방법 등을 준용하여 설정	주무부처의중기계획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거나 선진국 대비 하위수준인 공공서비스 등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목표 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평가 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분포	최상, 최하, 직전년도 실적치를 감안,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10년 이하로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추세치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부터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10년 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b) 계량지표 평가 방법

- 계량지표가 신설, 수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3년간 해당지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지표의 성과지표 전환 등 지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c)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 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 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구간은 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결정한다.

<표 2> 평가등급 기준

등 급	수 준 정 의
탁 월 (S)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 수 (A)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 호 (B)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 통 (C)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 흡 (D)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자료 : 기획재정부, 2015

Ⅲ. 경영평가제도 결과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를 다룬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3>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 경영평가제도 결과 관련 선행연구

저 자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주요결론
안숙찬 (2014)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실시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자료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관 유형, 규모, 재무적 특성, 기관장의 재직 연수 등 기관 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함	기관유형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관의 규모, 수익성, 상징성, 기관장의 재직연수가 경영평가 종합평가 점수와 양(+)의 관계로 나타남.
박정수, 유효정 (2011)	1988 년부터 2010 년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평가를 받은 32 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리더십, 전략, 조직 인사관리, 보수, 노사관리, 재무예산관리, 내부성과관리의 6 가지 변수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리더십, 전략, 보수 노사 관리, 재무 예산관리, 내부성과관리에 의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으나 조직 인사관리에 의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무, 예산관리는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최홍석 외 (2008)	2007년 기준 2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와 2005년~2006년도 경영평가 점수의 평균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조직의 구조적 변수(매출액, 직원 수, 자체 재원액. 전사전략수, KPI 수), 전략적 변수(기관 유형, BSC 도입 유무, 평가결과의 인사반영 유무, 외부 자문단 구성 유무)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직 구조 변수 중 직원주는 경영평가결과와 음(-)의 관계이나 자체 재원액, KPI 수는 양(+)의 관계로 나타남. 성과관리 전략 변수 중 BSC 도입, 자체평가 체계구축, 평가결과 인사 반영이 경영평가결과와 양(+)의 관계로 나타남
정재진 (2010)	2005~2009년 경영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공기업의 기관특성(인력, 1인당이익, 1인당자산, 사업예산 비중)과 환경적 특성(자치단체 자주재원비율, 소득수준, 도시화 수준, 인구밀도)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	인력, 1인당자산, 1인당이익과 경영평가결과 양(+)의 관계, 환경적 요인 중 해당 공기업 설립한 자치단체 주민 소득 수준이 경영평가결과의 양(+)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박용성 남형우 (2011)	공공기관의 2007~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경영평가결과(등급)와 역사성(설립연도),규모(자산, 총수입, 총매출, 순매출, 임직원수),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의 상관관계를 분석, 유의하게 나타난 자본총액, 부채비율, 총수입액의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부채비율만이 유의한 양 (+)으로 나타났고 업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관규모는 일부 변수에서만 유의함
권민정, 윤성식 (1999)	1996년 기준 18개 기관에 대해 5년간 자료에 대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자산, 매출액, 비용. 정원 등 조직 규모 및 기관특성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조직 규모 및 기관 특성과 경영평가결과 사시에는 상관관계가 낮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정석오 (2007)	2002~2005년 56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을 대표하는 재무적성과(영업수치비율 및 개선정도), 공공성을 대표하는 고객만족도, 기업규모가 경영평가결과와의 관련성을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함	재무적 성과(영업수지 비율 및 개선정도), 고객만족도, 기업 규모 모두 양(+)의 관련성을 보이나 기업규모는 성과 변수에 비하여 경영평가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Ⅳ.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문제와 연구의 분석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및 추구를 근본적인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영평가 지표 중 회계정보지표를 통하여 과연 회계정보가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공기업의 회계정보는 산출의 개념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의 총괄요약표에 제시된 평가점수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등급을 1점에서 5점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경영 평가의 회계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목록인 재무예산관리 중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부채감축도(당해년 감축실적/당해년 감축계획), 계량관리업무비(관리업무비/매출액) 등을 통해 이러한 회계지표가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이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경영평가를 받아온 공공기관 중 30개의 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분석 대상이 되는 공기업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1로 지정된 10개의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기업2(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총 30개 기업으로 구성된다. 해당 공기업들에 대한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www.alio.go.kr)로부터 수집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정보지표가 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는 경영평가등급을 A=5, B=4, C=3, D=2, E=1로 사용하였으며, 회계성과지표는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계량관리업무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기업 특성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규모,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분류, 공기업 유형(공기업 1,2)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text{등급}_{i,t} = \beta_0 + \beta_1 \text{총자산회전율}_{i,t} + \beta_2 \text{부채비율}_{i,t} + \beta_3 \text{계량업무관리비}_{i,t} + \beta_4 \text{당기순이익}_{i,t} + \beta_5 \text{기관규모} + \beta_6 \text{시장/준시장형} + \beta_7 \text{공기업유형}$$

<변수의 정의>

등급 : A등급-5, B등급-4, C등급-3, D등급-2, E등급-1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평균총자산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계량관리업무비 : 관리업무비/매출액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단위:백만원)
기관규모 : 총자산 자연로그값
시장/준시장 : 시장형이면1, 준시장형이면 0
공기업 유형 : 공기업1이면 1, 공기업2이면 0

4. 분석결과

<표 4-1>는 회계정보지표 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회계정보지표에 관한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경영평가등급은 3.3이며, 총자산회전율은 44.9619, 부채비율은 115.959, 계량관리업무비는 9.82로 나타났다.

<표 4-1> 변수의 기술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급	1.0	5.0	3.300	1.2635
총자산회전율	4.0568	310.4081	44.9619	56.8417
부채비율	6.10	433.00	115.959	107.711
계량관리업무비	0.029	87.832	9.8203	18.1037
당기순이익	-1611132	2798967	203570	674722
기관규모	26	33	29.29	1.772
시장/준시장형	0.0	1.0	0.467	0.5074
공기업 유형	0.0	1.0	0.333	0.4795

다음의 <표 4-2>에서는 본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과 기관규모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등급은 시장/준시장형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기관규모와 공기업유형간에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급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계량관리업무비	당기순이익	기관규모	시장/준시장	공기업유형
등급	1							
총자산회전율	-0.059	1						
부채비율	-0.143	-0.224	1					
계량관리업무비	-0.163	-0.143	0.106	1				
당기순이익	0.146	0.008	0.032	-0.110	1			
기관규모	-0.141	-0.216	0.548**	-0.082	0.397*	1		
시장/준시장	-0.549**	-0.099	0.110	-0.108	0.159	0.427*	1	
공기업 유형	0.171	-0.247	0.390*	0.196	0.122	0.655**	0.189	1

**. 1%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4-3>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자산회전율과 부채감축달성도는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계량업무관리비는 경영지표등급과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값(-1.572)을 나타났다. 이는 계량업무비가 낮을수록 경영평가 등급이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자산회전율과 부채감축도는 경영지표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 회계정보지표 중 일부 항목만이 경영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회계지표는 경영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3> 경영지표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대한 회귀분석(n=30)

변 수	회귀계수	t 값	유의확률
(상수)	12.031	2.338	0.029
총자산회전율	-.003	-.913	0.371
부채감축달성도	-.001	-.517	0.610
계량관리업무비	-.024	-2.334	0.029
당기순이익	5.4274	1.842	0.079
기관규모	-.279	-1.508	0.146
시장준시장	-1.435	-3.711	0.001
공기업유형	1.506	2.889	0.009
Adj. R^2	0.458		
F 값	34.494		

Ⅴ. 결론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는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과 책임성 제고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유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평가등급에서 회계정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지표 중 총자산회전율, 부채감축달성도, 계량업무관리비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정보지표 분석결과, 총자산회전율과 부채감축달성도는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량업무관리비는 경영평가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계량업무비가 낮을수록 경영평가 등급이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회계정보지표는 경영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지표가 공기업 경영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용된 회계정보지표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했다

는 점이다. 추후 연구로 다양한 회계정보지표를 추가하거나 공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준정부기관까지 표본 수를 늘려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73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법률 제3690호.법률 제7057호.

권민정, 윤성식(1999),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차별화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47-62.

조일출(2005),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성과동인의 구조적 분석,” 정부회계연구, 3(1), 29-51

박석희(2006),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조직역량 : 차단된 시계열설계를 통한 13개 공기업의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40(3), 219-244.

장석오(2007),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및 기업규모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21(3), 105-128.

최대규, 이동연(2008),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회계연구 8(2), 3-26.

최홍석, 김재훈, 정재진(2008), “공공기관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 관리 전략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125-148.

정재진(2010), “기관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 경영평가지표 및 등급부여 개선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2), 33-61.

김대중(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공공성과 기업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수, 유효정(2011), “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용성, 남형우(2011), “공공기관의 외형적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79-100.

이해영, 신지숙(2013), “공기업 생산관리의 딜레마 : 공공성과 수익성,”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1106-1138.

신완선, 라영재(2013),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07.

장지인(201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숙찬(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7(6), 835-859.

민병찬(2014),“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한민국국회

이홍범(2015),“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경영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채기, 윤태범(2015),“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운영성과,”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재정부(2015),“2014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감사원(2015),“공공기관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